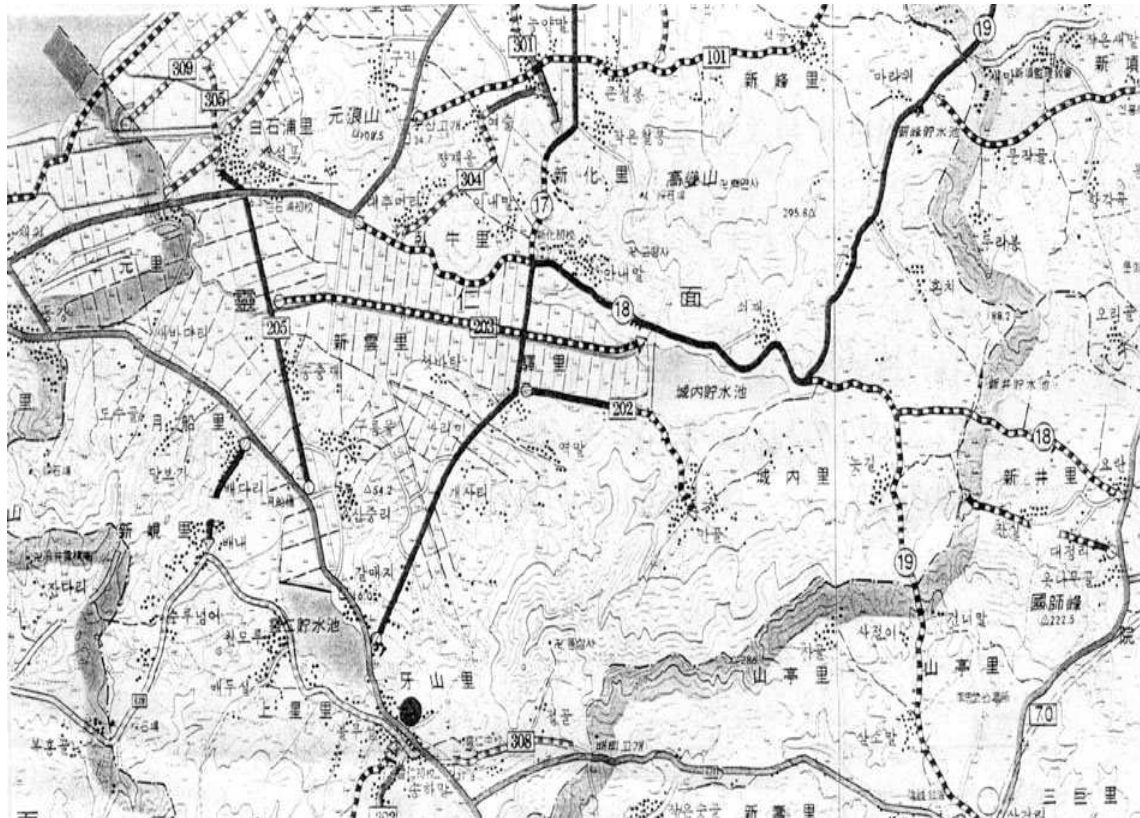


성내리·城內里

성내리는 영인면의 한 마을로 3개의 리로 나뉘는데, 쇠재, 안골, 돛질 마을로 구성되어 있다.

성내리는 총 인구가 596명으로 남자 300명, 여자 296명이 살고 있으며 총 가구수는 184가구에 이른다. 성내리는 아산 일북면의 지역인데 1914년에 금성리, 도곡리, 내동을 병합하여 금성 안쪽에 있으므로 성내리라 하여 영인면에 편입되었다.

<성내리 위치도>



☒ 쇠재, 안골, 돛질 마을

쇠재(성내리 1구)마을은 성내리 1구에는 금산 밑에 있는 마을로 쇠재라는 소재 옆에 있는 마을인 서촌말이 있다. 마을 앞으로 성내저수지가 있으며 이를 이용한 수리시설이 잘되어 있다. 또 650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 농촌 마을로 마을 뒤에는 380m의 고룡산, 애민선정 송덕을 기르는 공덕비 12기가 마을 진입로변에 있는 농촌 마을이다.

안골(성내리 2구)마을은 성내리에서 가장 큰 마을로서 음봉면 산정리 배티고개 북동쪽 곧 금산 북쪽안에 있으며 옛주춧돌 가와조각이 남아있어 음봉고을의 터라고도 전해온다고도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황촌 부곡의 터라 한다.

돛질(성내리 3구)마을은 산으로 에워 싸인 산간 마을로 일명 삼태기 마을이라고 불린다.

<조사당시 성내리 마을 관련 사진>



1) 위치

성내 1리는 영인 면소재지에서 북동쪽으로 6km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농촌 마을로 경도 127-00-00, 위도 36-52-40인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성내 저수지를 중앙으로 해서 북쪽에 성내1리, 남쪽은 성내 2리, 동쪽은 성내 3리가 위치해 있다. 성내2리 안골마을은 면소재지에서 동쪽 6km 지점에 위치한 마을로 북쪽에는 고룡산 동남쪽은 음봉면 산정리와 접해 있으며, 경도126-59-40, 위도 36-52-10인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성내3리 돛실마을은 면소재지에서 동쪽으로 7km 지점에 있고 성내 저수지를 중앙으로 동쪽에 위치하고 있다.

2) 현황

- 인구분포 현황

구분 마을명	계	남자	여자
쇠재마을	154명	79명	75명
안골마을	306명	147명	159명
돛실마을	136명	74명	62명

- 생업

구분 마을명	계	농업	기타
쇠재마을	100%	69%	31%
안골마을	100%	71%	29%

돛실마을	100%	87%	13%
------	------	-----	-----

- 농경지 현황

구분 마을명	계	논	밭
쇠재마을	52ha	35ha	17ha
안골마을	71ha	42ha	29ha
돛실마을	59ha	38ha	21ha

- 농기계보유 현황

구분 마을명	경운기	트랙터	양수기	분무기	관리기	이앙기
쇠재마을	24대	5대		2대	5대	7대
안골마을	39대	2대	1대		6대	11대
돛실마을	24대	3대	1대	5대	2대	19대

- 문화 시설

구분 마을명	마을회관	앰프	사물놀이악기	방송시설
쇠재마을	1채	1대	1조	
안골마을	1채	1대	1조	
돛실마을	1채	1대	1조	

- 연령 분포

구분 마을명	1-10	11-20	21-30	31-40	41-50	51-60	61-70	71-80	80이상
쇠재마을	13명	23명	11명	18명	21명	43명	20명	2명	3명
안골마을	8명	15명	27명	46명	50명	60명	80명	11명	9명
돛실마을	9명	5명	4명	12명	25명	40명	35명	6명	

- 성씨별 분포

구분 마을명	김씨	이씨	박씨	윤씨	강씨	신씨	기타
쇠재마을	9%	16%	5%	26%	9%	9%	26%
안골마을	14%	25%	6%	3%	2%	4%	46%
돛실마을	18%	2%	1%	9%		3%	67%

- 학생분포

구분 마을명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쇠재마을	10명	8명	5명	2명

안골마을	4명	5명	5명	7명
돛실마을		2명	2명	1명

－ 최고령자

쇄재마을을 93세의 이연이 할머니이시다.

안골마을은 85세의 이갑순 할머니이시며 돛실마을은 70세 양규화, 함인석, 차추금씨이다.

－ 호당 평균 소득

쇄재마을은 년/1,000만원

안골마을은 년/700만원

돛실마을은 년/800만원

3) 자연 경관

성내리 마을 뒤에는 380m의 고통산 앞으로는 성내 저수지가 위치하였으며 애민선정 송덕을 기리는 공덕비 12기가 마을 진입로변에 있다. 쇄재 마을 중앙을 신화리-둔포간 군도(18)호가 통과하고 있으며 저수지를 이용한 수리시설이 잘 정리되어 있어 농사짓기가 편리하다.

4) 마을 변천 과정

아산군 일북면의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금성리, 도곡리, 내동을 병합하며 금성 안쪽으로 있으므로 성내리라 하여 영인면에 편입되었다.

5) 입향

성내 1리 : 파평 윤씨인 윤자임이 500년 전 금전리에 낙향한 후 지금까지 후손이 거주해오며 많은 벼슬도 받아왔다. 윤자임은 박팽년과는 동방에서 사마시에 합격하여 장령을 역임하였다. 윤자임의 후손인 윤지복은 8문장의 한사람이며 도사로 있을때 이인거의 난을 평정하여 원종공신이 된분이다. 8문장의 한사람인 예안 이씨 이진행의 후손 현재 살고 있다. 온양 정씨가 살았으나 지금은 없으며, 그외 각 성씨가 거주하고 있다.

성내 2리 : 순흥 안씨가 400년간 마을에 살아오다 10년전 다 떠나고 지금은 김해김씨와 전주 이씨등 여러 성씨가 세거하고 있다.

성내 3리 : 오래된 마을이나 그 뿌리는 없으며, 100여년 전에 김해 김씨가 이 마을에 들어와 살면서부터 현재의 마을이 형성되었으며, 이 마을도 각성촌이다.

6) 지명

산골고개 : 쇄재에서 음봉면 샛골로 넘어가는 고개

고용산 사지 : 연대미상의 사지로서 고용산 남향사면에 위치해 있다.

토정샘 : 토정 이지함이 식수로 사용했던 샘이라고 구전되어 왔으나, 와전된 전설같으며, 현재 성내 2리 김영옥의 밭 안에 샘을 팅는데 지금까지 존재하며 가뭄에도 마르지 않고 있다.

토굴 샘 : 돛질 마을 가운데 위치하고 있으며 우물가에는 백오십년 쯤 된 향나무도 있다.

고용산(高湧山, 高聳山) : 고름산, 고통산, 고령산 또는 금성이라고도 하며 성내리, 신화리, 신봉리를 경계로 하는 산. 해발 295m가 되는데 병자호란 때 근처 사람들이 이 산에 올라와 피난하였는데 적병들이 올라오는 것을 돌로 내리쳐서 물리쳤다 한다. 1996년 봄에 대화재가 났다.

금산(錦山) : 면소재지에서 북동쪽 3Km 지점에 있으며, 산의 높이는 286m이고 영인면 내에서 세 번째 높은 산이다. 동쪽은 산소리(山所里)로 덕수 이씨 세장지지(世葬之地-선영)이다. 금산의 북쪽 기슭에 에워 싸여 한 마을이 되었으니, 곧 안골이다. 이 마을이 통일신라 때 음봉현(陰蜂縣)의 옛터였다고 전해오는데, 깨어진 주춧돌과 작은 기와 조각이 지금도 있는 것으로 보아 옛날의 읍기(邑基)였다는 주장도 있지만, 현재 정확한 사실이나 그 연혁은 고증할 수 없다. 『신정아주지』 참조.

닭 논 : 배가 고파서 닭과 논을 바꾸어 먹었다는 논.

먼산 들 : 무덤이 들 이라고도 하며 돛질에서 요란 가는 고개.

진설미 들 : 돛질 앞에 있는 들.

가재돌 : 안골 안에 있는 골짜기.

은 골 : 토정 이지함이 은과 금이 묻혀 있는 것을 보았다는 골

뒷 골 : 돛질 마을의 뒤에 있다.

용 추골 : 돛질 뒤편의 골짜기.

소나무 골 : 돛질돌이의 맞은편 골짜기.

당 골 : 성내 저수지에서 돛질로 올라가다가 있는 골짜기.

시계자리 : 시계를 파는 곳이었다고 전한다.

장 터 : 오얏고개 남쪽에 장이 섰었다고 한다.

북당골절사지 : 강한걸씨의 조모님께서 북당골 지점에 불상이 있는 꿈을 꾸 후 찾아가서 땅을 파헤쳐 보니 불상이 나오기에 절을 세워 운영하다 만영씨 모친께서 이어 받아 운영하다가 수십년전에 유실되었다.

쇠재사지 : 조선시대의 사지

성내저수지 : 성내리에 있는 저수지, 1958년에 준공되었다. 물리 넓이 245점이 된다.

안 골 : 성내리에서 가장 큰 마을. 음봉면 산정리 배타고개 북동쪽 곧 금산 북쪽안에 있으며, 옛주춧돌, 기와 조각이 남아 있는데 음봉고을의 터라고 전해오나 실지로는 황촌부곡의 터라 함.

돛 실 : 안골 동쪽에 있는 마을.

서촌말 : 쇠재 옆에 있는 마을.

쇠 재 : 금산 밑에 금산 밑에 잇는 마을 절그릇점이 있었음.

개밋들 : 안골 앞에 있는 들.

불당골 : 안골 앞에 있는 골짜기. 불당이 있었음.

사정이 고개 : 돛실에서 음봉면 사정으로 넘어가는 고개.

요란고개 : 돛실과 쇠재에서 음봉면 요란으로 넘어가는 고개

장골고개 : 돛실에서 음봉면 요란으로 넘어가는 고개

안골사지 : 고려시대의 절터로 추정되며 안골 뒷산에 있다.

성내리 산성 : 성내리 뒷족산에 축조 되어 있다.약410m에 이른다.

와요지 : 천주교 박해를 피하여 와요지에 많은 천주교인들이 은거하였다고 한다. 쇠재마을 능선 말단부에 있으며 기와 파편등이 발견되었다.

7) 전 설

고용산

영인면 성내리 신봉리 경계에 '고용'이란 산이 있다. 높이는 약 300m에 이르며 초목은 없고 큰 돌만 많이 쌓여 있는 산봉우리가 들가운데 높이 솟아서 사방을 내려다 볼수 있다. 병자 호란때 이 지방 남녀들이 모두 이산에 올라와 피난을 하는데 적병들이 사방에서 봉우리를 에워싸고 올라오고 있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공격해오는 적병을 향하여 돌을 내리쳐서 완전히 물리쳤다 한다. 그 돌이 그렇게 많이 산봉우리에 선조때의 인물이었던 토정이지함은 그 당시 안산 현감이 되어 선정을 베풀어 백성들은 태평가를 구가 하였으므로 그 마을 사람들의 칭송이 마를 사이가 없었다. 평온한 날이 계속되던 어느날 하루는 심심하여 통인을 데리고 고용산에 올랐다. 그리고 산의 경치를 즐긴 뒤 통인을 시켜 여러 바위를 두드리게 했다. 그랬더니 그중의 한 돌속에 금과 은이 가득차 있는지라 통인은 무척 놀라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통인은 그 재물은 차지하기 위해 토정을 없앨 방법을 생각하기 시작하였다. 그런 어느날 토정이 생지네죽을 먹고 생물을 먹어서 지네독을 제거 하는 것을 통인은 보았다. 그래서 그것을 기회로 여겨 토정이 생지네죽을 마신후 버드나무를 생률처럼 하여 먹게 하였다. 그 순간 통정은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쓰러져 죽고 말았다. 그래서 토인은 이때다 싶어 산으로 기어 올라 갔다. 그리고 전날의 그 바위를 찾기 위해 돌이란 돌은 모두 깨쳤다. 그리하여 간신히 찾은 바위속에는 금은 보화대신 돌로 가득 차 있었다. 기진맥진한 통인은 그 자리에서 숨을 가누지 못하고 자신이 깨놓은 돌이 구르는

바람에 깔려 죽고 말았다. 이런일로 인하여 우리나라 아전중에서 아산아전이 가장 천대를 받았다 한다. 그러니 그때 통인이 그때 금, 은을 찾기위해 깨트려놓은 돌로 병자호란때 적을 물리칠수 있었다 한다.

8) 전통놀이 및 집단행사

음력 정월 14일에 산에 제사를 지내는 산제가 있다고 한다. 이날은 이침 일찍 음식을 마련해서 산에 올라가 제사를 관장하는 제수를 중심으로 제사를 지내는데 마을의 평안을 비는 의미의 시제라고 한다.

9) 특별히 소개할만한 인물

성내리에는 특별히 소개할만한 인물은 조사되지는 않았지만 성내 1리에 있는 공덕비 12개를 소개코저 한다.

① 김명진(金明鎭) 영세불망비

소재지 : 영인면 성내리 1구

크 기 : 높이 149cm 두께 21cm

비 명 : 陪行御史使金公明鎭永世不忘碑

해 설 : 이비석은 성내리의 안골저수지 옆에 세워져 있는 성내리 비석군 중 하나다. 김명진은 조선 고종 때의 문신으로 1840년에 태어났다. 1870년에 정시별시 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으며, 1873년에는 별검춘추가 되고, 이듬해에 암행어사가 되어 충청좌도에 파견되었다. 그 뒤 1882년에는 대사성에 올랐으며, 시관·춘천부사를 거쳐 1886년에는 경기관찰사, 그리고 1888년에는 경상도 관찰사가 되어 외직에만 5년이상 근무하였다. 경기도와 경상도의 관찰시절에 올린장계의 내용중에는 당시의 수취체제의 혼란상이 자세히 적혀있어 고종 연간의 사회상 연구에 도움을 주는 바가 있기도 하다. 1980년에는 이조 참판에 올랐다. 이 비는 1874년에 있었던 암행어사 시절의 덕행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것으로 보인다.

② 김진화(金鎭華) 선정비

소재지 : 영인면 성내리 1구

크 기 : 높이 138cm, 너비 50cm 두께 21cm

비 명 : 縣監金侯鎭華愛民善政碑

해 설 : 김진화는 정조 17년(1793)에서 철종 1년(1850)까지 활약한 조선후기의 문신으로 자는 성관, 호는 탄와다. 1828년에 창릉참봉이 되고, 자문 감봉사를 거쳐 한성부판관을 지냈으며, 외관으로 나가 아산현감, 진산현령, 무장현령을 거쳐 능주목사에 이르렀는데 그 때마다 선정을 베풀었다. 특히 1834년 아산 현감으로 있을 때에는 진휼을 잘하여 상을 받았다. 이 비석은 이때의 선정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것으로 보인다.

③ 노병목(盧炳穆) 선정비

소재지 : 영인면 성내리 1구

크 기 : 높이 136cm, 너비 43cm, 두께 21cm

비 명 : 縣監蘆侯炳穆清德善政碑

해 설 : 성내리 쇠재 마을에 있는 비석군 중 하나다. 노병목은 아산현감을 지낸 조선조의 문신으로, 현감으로 재임하면서 청렴결백하고 선정을 베풀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비석이다. 비석의 건립연대는 알 수 없다.

④ 민영상(閔永商) 영세불망비

소재지 : 영인면 성내리 1구

비 명 : 巡相閔公泳商永世不忘碑

해 설 : 비문에 보이는 민영상은 조선조의 문신인데, 그를 기리기 위해 세운 비석이다. 순상이란 순찰사를 말하는 것인데, 이 순찰사는 조선시대의 재상으로 왕명을 받아 군무를 통찰하던 사신을 가리키는 말이다. 정 1품을 체찰사, 정 2품을 도순찰사, 종 2품을 순찰사라 하여 직위에 따라 호칭이 달랐다.

⑤ 박태영(朴台營) 영세불망비

소재지 : 영인면 성내리 1구

크 기 : 높이 122cm, 너비 42cm, 두께 20cm

비 명 : 縣監朴侯台榮永世不忘碑

해 설 : 성내리 쇠재 마을에 있는 비석군중 하나로 윗면이 둥글게 되어 있는 갈의 형태를 하고 있다. 박태영은 조선조의 문신으로 아산현감을 지냈는데, 아산현감으로 있을 때 벼꾼 선정을 기리기 위해 세운 비석이다. 건립연대는 알 수 없다.

⑥ 심상훈(沈相薰) 영세불망비

소재지 : 영인면 성내리 1구

크 기 : 높이 116cm, 너비 44cm, 두께 21cm

비 명 : 관찰사 심공 상훈 영세불망비

해 설 : 관찰사 심상훈의 선정을 기리기 위해서 세운 비석이다. 심상훈은 1854년에 태어난 조선 말기의 문신이다. 1884년 갑신정변이 일어나고 고종 일행이 경주궁에 임시 거처하고 있을 때 경기도 관찰사로서 경북궁에 들어가 개화당에 합세하는 척 가장하고 몰래 왕에게 정변의 기밀과 개화당의 진상 등을 알려주어 왕과 민비에게 밀통하였고, 청나라의 군대를 움직여 개화당의 혁신 정부를 무너뜨리기도 하였다. 같은 해에 충청도 관찰사로 있으면서 동학교도의 탄압에 앞장섰고, 1893년 이조판사를 거쳐 선해청당상에까지 이르렀으나, 악화인 백동화 같은 보조화를 주조하여 유통 질서에 혼란을 초래하였다는 이유로 독립협회로부터 탄핵의 대상이 되었다가 1898년에 체직(제임: 벼슬이 바뀜)처분을 받았다.

⑦ 류 석(柳 奭) 선정비

소재지 : 영인면 성내리 1구

크 기 : 높이 119cm, 너비 43cm, 두께 22cm

비 명 : 수의류공석 선정비

해 설 : 이 비는 암행어사 유석의 선정비다. 유석은 1814년에 태어난 조선말기의 문신이다. 1871년 친림경무대문과에 병과로 급제한 뒤, 민씨정권이 들어선 1874년 의정부의 처천으로 강원도 암행어사가 되어 평해, 강릉의 허결을 탐감할 것을 건의하였다. 다시 1883년 충청좌도 암행어사로 임명되어 삼정의 폐해, 수령과 향리 부정을 규찰하였다. 또한 각지에 큰 흉년이 들고 화적이 횡행하던 1886년 경상좌도 암행어사로 파견되어 민정을 살폈다. 그 후 1894년에 대사간을 마지막으로 관계에서 물러났다. 비문에 보이는 수의란 암행어사를 가르키는 말이다. 따라서 이 비는 1883년에 충청좌도 암행어사가 되어 민정 시찰 나왔을 때의 선정을 기리기 위해서 세운 것으로 보인다.

⑧ 이만시(李萬始) 애민선정비

소재지 : 영인면 성내리 1구

크 기 : 높이 165cm, 너비 60cm, 두께 27cm

비 명 : 현감이후만시애민선정비

해 설 : 이만시는 조선조의 문인으로 아산 현감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 벼꾼 선정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비석이다. 비분은 해서체로 새겨져 있는데, 정확한 건립연대는 알 수 없다.

⑨ 이재룡(李載龍) 송덕비

소재지 : 영인면 성내리 1구

크 기 : 높이 140cm, 너비 50cm, 두께 22cm

비 명 : 증추원 의관 이공 재룡시혜 공덕비

해 설 : 이 비는 증추원 의관 이었던 이재룡의 덕정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송덕비다. 비에는 "유공호덕 경포관학 만구유기 발속주례 택필수인 유구불망 의이위리 수비영기"라고 부기하여 그의 구휼 선정을 기리고 있다. 비문에 보이는 의관은 조선 말기 증추원에 소속된 관직의 하나로 의장, 부의장 밑에 설치되어 있었다.

⑩ 조병철(趙秉哲) 선정비

소재지 : 영인면 성내리 1구

크 기 : 높이 132cm, 너비 46cm, 두께 19cm

비 명 : 군수조후병철청덕선정비

해 설 : 조선조 문신 조병철의 선정을 기리기 위해서 세운 것이다. 군수라는 칭호로 보아 19세기 말경에 세운 것으로 보인다.

⑪ 홍병도(洪秉燾) 영세불망비

소재지 : 영인면 성내리 1구

크 기 : 높이126cm, 너비 43cm, 두께 20cm

비 명 : 현감홍후병도영세불망비

해 설 : 조선조의 문신 홍병도가 아산 현감을 지낼때의 선정을 기리기 위해서 세운 것이며, 건립 연대는 자세하지 않다.

⑫ 이중하(李重夏) 영세불망비

·소재지 : 여인면 성내리 1구

·크 기 : 높이 138cm, 너비 4,550cm, 두께 21cm

·비 명 : 암행어사 이공중하영세불망비

·해 설 : 암행어사 이중하의 선정을 기리기 위해 세운 것이다. 이중하(1846~1917)는 조선말기의 문신으로 자는 후경 호는 규당이다. 고종 19년(1882) 증광문과 병과에 급제하여 홍문관 교리가 되었으며 두차례에 걸쳐 토문감계사가 되어 청국과 국경 문제를 놓고 담판하였다. 1890년에 이조 참의가 되어 충청도 암행어사의 임무를 수행하였고 1894년에 동학농민전쟁이 일어나자 경상도 선무사 영월 영천안핵사 경상도 위무사가 되어 진압에 앞장섰다. 지방관리 재직시 선정을 베풀었다고 한다.

10) 종교단체

성내 감리교회 영인면 성내1리 목사 강정구 종파 : 감리교

성내중앙교회 영인면 성내2리 목사 박진석 종파 : 감리교

무설원 영인면 성내2리 원장 김영화 종파 : 태고종

11) 공장현황

이 마을에서 가동 중인 공장은 조사 되지 않았음.

12) 마을의 특성

성내 1리 진입로 변에 공덕비 12개의 비가 보전되어있는데 원래는 안골 저수지있는곳에 세워져 있었던 것을 저수지가 생기면서 성내 1리로 옮겨졌다. 성내 3리는 1991년부터 1994년까지 연속 4년간 범죄 없는 마을로 선정된 살기좋은 마을이며, 사람들이 꺼려하여 아동복지 시설인 성모 복지원이 자리하고 있다.